

구원의 정점(Culmen Salutis): 칼빈이 설교한 기독교론

문병호(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복음이 설교되고 우리가 함께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일 때 이것은 인간이 고안한 정책이거나 질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의 환상이거나 발명품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립한 포고(布告)이며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거역하려고 함이 합당치 않은 영구적인 법(une loi permanente)이다.¹

I

설교학의 형성과 관련된 제 이론들을 논외로 하더라도 설교의 존재는 말씀의 존재와 그 제를 같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론(異論)은 없을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으므로 말씀과 들음 사이의 전달의 도구로서의 설교자와 전달 자체 혹은 그 대상으로서 설교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종교 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다. 예배의 지향점이 보는 예배(cultus visus)로부터 듣는 예배(cultus auditus)로 바뀌게 되었다.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ore) 인격으로(a persona)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여겨졌다.² 하나님의 대언자인 목사의 설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인 성례의 거행과 함께 교회의 표지(nota)로서 인식되었다.³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감화된 심령에 친히 말씀하

¹ John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tr. Arthur Golding (London, 1577), rev. tr. Leslie Rawlinson and S. M. Houghton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3), Eph. 3:1-6 (233, CO 51.442). 이하 설교는 Serm. 성경 장.절로 표기. 참고.

² 이와 같은 성경 이해에 기반하여 칼빈은 설교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례적인 임재라고 본다. Cf.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3), 84-85; John H. Leith, "Calvin's Doctrine of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and Its Significance for Today," in Timothy George, ed., *John Calvin &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0), 211-212.

³ Cf.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 libros quatuor nunc primum digesta, certisque distincta capitibus, ad aptissimam methodum: aucta etiam tam magna accessione ut propemodum*

심, 즉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verba inspirata)이 그 조명(illuminatio)으로 감화된 심령(cor persuasum)에 친히 말씀됨이 설교로서 그리고 설교자는 그 도구로서 여겨졌다.⁴ 가시적 교회의 표지(notae ecclesiae)로서의 설교의 영향으로 성도의 표지(notae fidelium)로서의 믿음과 행위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⁵

말씀의 말씀됨을 설교로 이해함에 있어서 개혁교회는 말씀된 말씀은 말씀의 권능을 갖는 것으로 믿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도구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심이 설교이다.⁶ 그러므로 설교는, 엄밀하게 말해서, 말씀의 자기 선포 혹은 그 과정이다. 설교는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인간의 해석을 통해서 비로서 말씀이 조리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다(accommodare).⁷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원형계시, revelatio archetypa)의 드러남이다(모형계시,

opus novum haberi possit, 1559, 4.1.10, CO 2.753-754: “Ubi enim cunque Dei verbum sincere praedicari atque audiri, ubi sacramenta ex Christi instituto administrati videmus, illic aliquam esse Dei ecclesiam nullo modo ambigendum est.” 이를 인용함에 있어서 다음 번역본을 참고한다.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이하 *Inst.* 권.장.절 순으로 표기. 이하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는 CO 로 표기. 교회의 표지에 대한 언급은 프란시스왕에게 드리는 헌정사에서 이미 개진된다. “Prefatory Address to King Francis I of France,” *Inst.* 24-25 (CO 2.23).

⁴ 성경의 권위(auctoritas)는 그 저자(auctor)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은 성령의 은밀한 증거(arcanum testimonium)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들에게만 확정된다(*Inst.* 1.7.1-5, CO 2.56-61).

⁵ Cf. Wilhelm Neuser, “Calvin’s Teaching on the notae fidelium: An Unnoticed Part of the *Institutio* 4.1.8,” tr. Mark S. Burrows, in *Probing the Reformed Tradition: Historical Studies in Honor of Edward A. Dowey, Jr.* ed. Elsie Anne McKee and Brian G. Armstrong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89), 90-91.

⁶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소위 두 음성(vox duplex, double voix) 이론이 성경의 축자적(verbatim) 문자적(litteratim) 영감에 기반한 칼빈 설교학의 정수이다. Cf. John H. Gerstner, “Calvin’s Two-Voice Theory of Preaching,” *Reformed Review* 13(1959), 15-26.

⁷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인간을 통해서 들려 주시게 위해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에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의 언어에 자신을 맞추셨는데(accommodatio), 그 정수가 설교에 나타난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았듯이,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성도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선포된 설교(externa praedicatio)”는 가시적 교회가 서 있는 유일한 기초이며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고리(vinculum)”가 된다 (*Inst.* 4.1.5, CO 2.750-751).

revelatio ectypa).⁸ 설교는 드러냄이 아니라 다만 드러냄을 증거할 뿐이다. 설교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는 것이다.

설교가 말씀의 말씀됨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설교되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특정되는 바, 그것들의 실체이자 계시인—말씀이시자 말씀의 교사이신—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논의될 수 없다. 칼빈에게 과연 과연 설교학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대체로 회의적일 것이다. 오늘날 설교학에서 기본적으로 운위(云謂)되는 제 종류의 설교의 특징들이나 전달 방법론이 그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논급되지 않는다. 그는 특정한 설교론이나 설교학을 전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혁주의 설교학, 분명, *Sola Scriptura scripta*의 원리에 기반한 참 설교학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교사로서(magister Scripturae) 사용하신⁹ 이 사람의 설교자로서의 생애에 두루 문의(問議)해야 할 것이다.¹⁰

그는 모범적인 설교자였다. 설교의 방법을 풀어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본문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어떻게 주해할 것이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형을 보여주었다. 또한 설교의 횡수와 본문 선정에 대한 개혁 교회의 효시(嚆矢)를 제시했다. “나의 심장을 신실하게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 드립니다(Cor meum tibi offero Domine sincere et prompte)” 라는 그의 헌신은 생의 마지막까지 계속된 그의 설교에서 극치에 이른다. 우리는 그의 설교 행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며 그가 선포한 설교 자체를 분석하고 종합화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가 자주 표현하듯이 설교를 통하여

⁸ Abraham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tr. J. Hendrik De Vries (Grand Rapids: Eerdmans, 1980), 275-299;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ume 1: Prolegomena*, ed. John Bolt, tr.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2003), 209 ff.

⁹ Cf.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ume 1*, 178, 415, 583-585; Cornelius Van Til, *The Protestant Doctrine of Scripture, In Defense of the Faith*, vol. 1 (Ripon, CA: Den Dulk Christian Foundation, 1967), 115-121; Kenneth S. Kantzer, “Calvin and the Holy Scriptures,” in *Inspiration and Interpretation*, ed. John F. Walvoord (Grand Rapids: Eerdmans, 1957), 115-155.

¹⁰ 설교자로서 칼빈에 대해서, Leroy Nixon, *John Calvin, Expository Preacher* (Grand Rapids: Eerdmans, 1950), 29-45; T. H. L. Parker, *Calvin's Preaching* (Edinburgh: T & T Clark, 1992), 1-75; W. de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An Introductory Guide*, tr. Lyle D. Bierma (Grand Rapids: Baker, 1993), 110-117.

서 하나님의 학교(l'escole de Dieu) 혹은 그리스도의 학교(l'escole de Christ)에서 배울 바를 찾아야 한다.¹¹ 이는 그의 설교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vox Dei)이 반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고는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기독교론을 그의 중보자직과 관련해서 다룬다. 이로써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신학적 한 전형을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¹²

II

칼빈의 작품은 동시에 함께 읽혀져야 한다. 그는 한 작품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자 하지 않았다. 많은 부분 기독교 강요는 상세한 설명을 주석에 미루고 있으며, 주석은 설교에서 종합된다. 기독교 강요가 경건한 교리를 추구하는 학생으로서 성도들의 기본 가르침을 적시하고 있다면 주석은 말씀에 따른 주해적 설명이며 설교는 이러한 주해의 적용을 함의하는 것이었다.¹³ 무엇보다도 칼빈 설교에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은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것의 성도의 구원에의 적용을 역동적으로 다룸에 있다.¹⁴ 기독교 강요에서 이들 주제들은(loci) 가르침의 순서(ordo docendi)에 따라서 별개로 다루어진다. 주석에서는 그 해석이 본문에 머문다. 그러나 설교에서는 대체로 교리는 적용을 동반한다.¹⁵ 칼빈의 설교는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일치를 매우 인상적으로 보여준다.¹⁶

¹¹ Parker, *Calvin's Preaching*, 25-27.

¹²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신론을 다룬 Richard Stauffer 교수의 다음 글은 드문 예에 속한다. “칼빈의 설교신학(신론),” 박건택 편역, [칼빈의 설교학] (서울: 나비, 1990), 85-117.

¹³ Cf. David F. Wright, “Calvin's Commentary and Sermons on Acts 1-7: A Comparison,” in *John Calvin and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Calvin Studies XI*, ed. David Foxgrover (Grand Rapids: CRC Product Services, 2006), 290-306.

¹⁴ 기독교 강요 2 권과 3 권에 나타나는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역동성을 *Christus praesens extra nos* 와 *in nobis*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다룬 다음 작품을 참조. Dawn DeVries, *Jesus Christ in the Preaching of Calvin and Schleiermacher*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6), 96.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의 *unitas in unio* 를 성도의 구원과 연결시킨 다음 작품 참조. Stephen Edmondson, *Calvin's Chris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15-219.

¹⁵ 칼빈은 에베소 설교에서 교리에 261 쪽, 실제 생활에 352 쪽을 할애한다. 이는 그의 설교의 강조점을 예시한다.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Publisher's Introduction,” xv.

¹⁶ 이는 성경의 하나임(*unitas*)에 기반한다. Parker, *Calvin's Preaching*, 93-107.

다윗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고 그의 율법에 대한 묵상을 주님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해하면서, 칼빈은 시편 89편 설교에서 율법의 위대하고 완전한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길(*chemin*)이라고 묘사한다. 전반부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율법의 이중적인 사역(*lex accusans et vivendi*)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공로에 문의한다. 이와 같은 기독교론적 고찰에 이어서, 율법의 의를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의와 연결함으로써 율법의 구원론적 의미로 나아간다.¹⁷ 같은 입장이 후반부에도 계속 전개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독교인의 삶에 더욱 집중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제시하는 율법의 자연적인 사역에 대한 언급이 잠시 있는 후,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흘러 나오는 율법의 유익과 가르침에 대한 장이 펼쳐진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위한 율법의 계속적인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다시금 관심이 쏟아진다.¹⁸ 그리고 그리스도의 값없이 전가해 주시는 은혜로부터 나오는 율법의 은혜를 지적함으로써 설교가 끝난다.¹⁹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칼빈의 공관복음 설교는 또 다른 실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공로(*meritum Christi*)에 관해서, 율법의 실체와 진리로서 그리스도는 그의 영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점이 부각된다.²⁰ 이러한 기독교론적인 고찰에 이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증보의 연속

¹⁷ Serm. Ps. 89:31-39. *Supplementa Calviniana. Sermons inédits*, ed. Erwin Mühlhaupt et al.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36- , 이후 SC), 7.65-67. 본 논고에 인용된 SC는 다음과 같으며 이후 다만 성경 장.절로만 표기된다. vol. 1, *Predigten über das 2. Buch Samuelis*; vol. 3, *Sermons sur le Livre d'Isaïe chapitres 30-41*; vol. 5, *Sermons sur le Livre de Michée*; vol. 7, *Psalmenpredigten, Passions-, Oster-, und Pfingstpredigten*; vol. 8,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vol. 11/1, *Sermons sur la Genèse chapitres 1,1-11,4*; vol. 11/2, *Sermons sur la Genèse chapitres 11,5-20,7*.

¹⁸ Serm. Ps. 89:31-39 (SC 7.67-70).

¹⁹ Serm. Ps. 89:31-39 (SC 7.70-72).

²⁰ *John Calvin's Sermons on the Deity of Christ*, tr. Leroy Nixon (Grand Rapids: Eerdmans, 1950), 2nd ed. (Audubon, N. J.: Old Paths Publications, 1997), Lk. 1:33 (CO 46.80-81): “Car Iesus Christ en [de la loy] est la fin, comme il le dit en l'autre passage. Et puis encores en l'autre passage, C'est luy qui en est l'ame et l'esprit. Car c'est une chose morte que la Loy, et mesmes tous les Prophetes, sinon que tout soit vivifié par nostre Seigneur Iesus Christ, et que nous cognoissions que c'est en luy que tout gist et consiste, et qu'il est la vertu et substance de toutes les figures et ombrages qui ont este anciennement.”

과 그의 영의 계속적인 사역을 통한 구원 과정에 있어서의 율법의 사역과 용법이 설명한다.²¹

이와 같이 칼빈은 기독교론적으로 고찰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의라는 개념을 구원론적으로 고찰된 그의 의의 전가라는 개념과 함께 파악한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증보하신다는 사실이 그 기저(基底)이다. 이러한 칼빈의 입장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의 설교에 나타난 네 가지 특징들을 정리해 보자.

첫 번째, 칼빈은 교회의 하나임(*unitas*)과 연속성(*continuitas*)을 주장하고,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전개한다. 그는 교회를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에 속한 아브라함의 씨앗들이라고 본다.²² 이런 관점에서 성도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양성적 증보를 설명한다.²³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되심에 관해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체임을 알고 있었으며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고 있었음을 특별히 강조한다.²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되심은, 그가 그의 지체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서 증보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의 증보하는 은혜에 기초시킨다.²⁵

교회의 하나임이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에 기초하듯이, 교회의 연속은 그리스도의 증보의 연속으로 설명된다.²⁶ 칼빈은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의식들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 의식들은 일시적인 규례로 제정되었으나 그것들의 실체는 영원하고 불변하다.²⁷ 생명을 살리는

²¹ Serm. Lk. 1:31-35 (CO 46.73-86). 칼빈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자로서의 현재(顯在)를 부정하는 셀베투스를 비판하고 있다(CO 46.79-80).

²² Serm. Gen. 15:4-5 (89-93, SC 11/2.741-743); Ps. 147:18-20 (SC 7.11-15); John Calvin, *Sermons upon the Epistle of Saint Paul to the Galatians*, tr. Arthur Golding (London, 1574), repr. (Audubon, N. J.: Old Paths Publications, 1995), 3:18 (430-437, CO 50.529-534).

²³ Serm. Acts 7:36 (SC 8.312-313); Eph. 1:21 (112-114, CO 51.336-338); Eph. 3:16 (282-283, CO 51.485-486).

²⁴ Serm. Eph. 1:17-18 (107-110, CO 333-336); Eph. 4:16 (402-404, CO 51.591-592); Eph. 5:30 (600-604, CO 51.767-772).

²⁵ Serm. Eph. 1:21-23 (114-126, CO 51.333-350, esp. 118-119, CO 51.343-344). Cf. Selderhuis, "Church on Stage: Calvin's Dynamic Ecclesiology," 54-59.

²⁶ Serm. Mic. 3:11-4:9 (SC 5.104-137).

²⁷ *Sermons of M. John Calvin upon the Fifth Booke of Moses called Deuteronomie*, tr. Arthur Golding (London: Henry Middleton, 1583), facsimile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3), Deut. 27:2-6 (9-13, CO 28.298-301).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성전과 성막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²⁸ 이 경우 그리스도는 의식들의 실체일 뿐만 아니라 완성이며,²⁹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계속하는 한 우리는 율법에 규정된 의식들의 동일한 진리로 교훈을 받을 것이다.³⁰ 의식법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법의 계속적 유효성이 교회의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는데, 이는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만 그 본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³¹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연속을 두 번째 중요한 특징으로 합당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율법이 복음과 구별되는 것은 그것의 경영(*oeconomia, dispensatio*)에 관계되지만, 그들의 실체(*substantia*)는 하나이며 같다. 특히 구약의 구원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칼빈은 *the so-called extra Calvinisticum*에 기반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동시대적(*ad-hoc*) 의의에 집중한다. 심지어 타락 전에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들을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연합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사역을 했다.³² 멜기세덱에 관한 설교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연속을 멜기세덱의 사역과 비교함으로써 설명한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모세 이전 시기에 도 제사장과 왕직의 중보자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써 표상한다.³³ 구원에 관한 지식이 율법이 수여되기 전에 이미 계시되었으며 중보자 그리스도가 이미 신자들을 위해서 활동했음이 선포된다.³⁴ 또한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승천 후에도 “중보자의 인격 가운데서

²⁸ Serm. Ps. 48:9-15 (SC 7.58-59, 62-63); Acts 7:42-44 (SC 8.355-363); Acts 7:53 (SC 8.383); Gal. 4:9-10 (552-559, CO 50.603-607).

²⁹ Serm. Mic. 4:9 (SC 5.134-136).

³⁰ Serm. Gal. 1:22 (140-141, CO 50.354); Gal. 2:4 (158-162, CO 50.365-367).

³¹ Serm. Eph. 5:8-9 (512-513, CO 51.687-689).

³² Serm. Eph. 3:9 (261-262, CO 51.466): “Notons bien donc que tout a esté créé en Iesus Christ, quand il a esté ordonné chef des Anges et des hommes: voire encores que nous n’eussions point eu besoin de Redempteur, si est-ce que desia nostre Seigneur Iesus Christ avoit esté établi pour nostre chef. Il n’avoit que faire de vestir nostre nature, ni de s’offrir en sacrifice pour la redemption des pecheurs: mais quoy qu’il en soit, si ne laissoit-il point d’avoir desia cest office de reconcilier Dieu avec les hommes et les conioindre avec les Anges du ciel.”

³³ Serm. Gen. 14:18 (SC 11/2.703-707).

³⁴ Serm. Gen. 14:18 (SC 11/2.705-706, 709-714).

(en la personne du mediateur)”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설교된다.³⁵

칼빈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단순히 그의 사역의 효과에만 관련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그의 영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본체에 연합하는 것이라고 설교한다.³⁶ 칼빈에 의하면 몸과 영은 동일 실체(substantia)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분되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재(遍在)는 그의 실체의 편재이며, 이러한 실체의 편재를 통해서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성례적인 연합이 신학적으로 설명된다. 승천 후 중보자의 인격적인 현존에는 어떤 변형(transformatio)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양성적 중보를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적이나 실제적인 임재는 the so-called *extra Calvinisticum*에 의해서 심오하게 해석된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해서, 교회의 연속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계속되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중보의 연속으로 설명된다.³⁷

칼빈의 설교에 특징적으로 전개되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구원론적 의의를 명확히 보여 주는 세 번째 특징은 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내적 조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을 완전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 순결의 영, 모든 의의 영, 진리의 영 등으로 부른다.³⁸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직의 범위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까지 확장된다고 본다.³⁹ 그리스도의 영의 독특한 성격은 경건한 사람들을 그의 의에 동참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sursum corda)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완전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작용과 관련해서

³⁵ Serm. Gen. 14:19 (SC 11/2.715-716). Cf. Comm. Heb. 5:6 (62-63, CO 55.60-61). 주석 표기는 전체적으로 Comm. 성경 장.절로 표기. 이하 구약주석은 *The Commentaries of John Calvin*, 46 vols., Calvin Translation Society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48-1950)을 사용(vols.1-15). 그리고 신약 주석은 John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ed., D. W. Torrance and T. 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60-1972)를 사용.

³⁶ Serm. Eph. 4:10 (360, CO 51.552): “. . . non pas que nous soyons creez de sa substance, mais que par la vertu de son saint Esprit il fait decouler en nous la substance de son corps et de son sang, dont nous sommes rassasiez: . . .”

³⁷ Serm. Eph. 4:10 (353-360, CO 51.546-554).

³⁸ Serm. Deut. 9:17 (404b-405b, CO 26.697-701); Eph. 1:1 (14, CO 51.251).

³⁹ Serm. II Sam. 8:15 (418-426, SC 1.244-249).

현저하게 제시된다.⁴⁰

의심할 바 없이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생명(vie)이며 영(ame)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영의 특별한 조명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parolle de vie)”이며 “살아있는 말씀(parolle vivante)”인 율법이 삶의 규범(regula vivendi)으로서 그것의 고유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살리는 규범(regula vivificandi)으로서 그것의 신학적인 사역을 감당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⁴¹ 두 가지 사실이 이와 관련해서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로, 생명을 주는 율법의 사역은 증보자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영의 조명을 통하여서 값없이 전가된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제시된다.⁴² 둘째로, 더욱 구체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에 진정하게 복종하는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영의 감화를 받아서 그의 모범을 좇아 사는 것이다.⁴³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칼빈이 디모데전서 설교에서 제시한 다음 세 가지 방법에 잘 반영되어 있다: 율법은 삶의 규범을 합당하게 가르친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씨앗들에 속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계시한다; 율법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게 한다.⁴⁴

마지막 특징은 이상 세 가지 특징들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인격과 부족한 행위도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이중적인 전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율법의 증보의 의의를 드러낸다.⁴⁵ 율법의 본질을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regula vivendi pie et iuste)으로 칼빈에게 있어서 율법의 신학적 용법과 규범적 용법은, 이는 전체 구원 과정에서 그

⁴⁰ Serm. Eph. 3:14-19 (285-302, CO 51.485-502).

⁴¹ Serm. Acts 7:38 (SC 8.328); Matt. 1:22 (CO 46.259).

⁴² Serm. Acts 7:38 (SC 8.329-330).

⁴³ Serm. Eph. 4:24 (437-441, CO 51.621-625).

⁴⁴ *Sermons of M. John Calvin on the Epistles of S. Paule to Timothie and Titus*, tr. L(aurence). T(omson) (London: George Bishop, 1579), facsimile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3), 1 Tim. 1:5 (26b-37b, CO 53.29-40, esp. 28a-28b, CO 53.31-32).

⁴⁵ 칼빈에게 있어서 *duplex iustitia* 는 주로 *duplex imputatio* 를 의미한다: “sola fide non tantum nos sed opera etiam nostra iustificari” (*Inst.* 3.17.10, CO 2.598). 그러므로 이는 로마 교회의 신인합력설에 기반한 *duplex iustificatio* 와 오시안드의 “본질적인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내주(essentialem iustitiam et essentialem in nobis Christi habitationem)”에 기반한 “*duplicis iustitiae*”와는 구별되어야 한다(*Inst.* 3.11.10-11, CO 2.540-543). 칼빈은 *duplex iustitia* 를 하나님의 숨겨진 의와 드러난 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Cf. Susan E. Schreiner, “Exegesis and Double Justice in Calvin’s Sermons on Job,” *Church History* 58/3 (1989), 322-338.

리스도의 중보가 분리되지 않음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구원의 교리를 주로 첫 번째 용법과 올바르게 경건하게 사는 삶의 규범을 세 번째 용법과 관계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 용법과는 달리 이 두 용법은 공히 성도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과 지속적인 의의 전가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율법의 영적인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지속적인 전가를 강조한다.⁴⁶

율법의 본래 목적은 교육적이다(pedagogical). 의식법을 포함하는 전체법은 우리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건덕(aedificatio)하고 교훈한다.⁴⁷ 율법의 원래 본질은 규범적이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⁴⁸ 율법의 의는 더 고상한 하나님의 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구원의 은혜는 시온산 위에서 계시되었으며, 율법은 율법이 공포되기 전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왔다.⁴⁹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현존과 교통이 중보자의 역할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낸다.⁵⁰ 율법이 계시하는 실체는 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교통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낮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약(nostre medecin spirituel)”이다.⁵¹ 치유의 처방(remede)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원의 전 과정에 관계된다. 기독교인의 자유의 적극적인 측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은 복음 안에서 죽는 것이다. 즉, 중보자의 은혜로 옷 입혀졌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mort mortelle)”은 “생명을 살리는 죽음(mort vivifiante)”이 된다.⁵² 따라서 기독교인의 자유는 전체 구원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는 것에 다름 아니다.⁵³

이러한 네 가지 특징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중보의 다양한 측면들을 동시에 규정한다. 화해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함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행위를 모두 받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

⁴⁶ Serm. Eph. 2:10 (165-169, CO 51.383-386).

⁴⁷ Serm. Acts 7:44 (SC 8.359-363); Eph. 2:14-15 (191-197, CO 51.405-412).

⁴⁸ Serm. Acts 5:20 (SC 8.154-156).

⁴⁹ Serm. Ps 48:2 (SC 7.51); Mic. 4:2 (SC 5.107, 114-120).

⁵⁰ Serm. Matt. 1:23 (CO 46.266-269); Deut. 7:21 (336a-337a, CO 26.563-565).

⁵¹ Serm. Gen. 15:6 (SC 11/2.747-750); Acts 5:13-16 (SC 8.140-147).

⁵² Serm. Gal. 2:17-18 (271-280, CO 50.433-439, quot. 270-280, CO 50.438-439).

⁵³ Serm. Gal. 5:1-3 (642-662, CO 50.655-670, esp. 644-646, CO 657-659).

스도는 율법의 완성으로서 자신을 계시한다. 가르침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본래적인 의를 해석하고 계시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의 실체와 진리를 알게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린다.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중재를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을 좇아 살도록 교훈과 권고를 받는다.⁵⁴ 칼빈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의 전가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율법의 중보로 구원론적 의미를 획득한다. 이 점이 그의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III

이상 우리는 칼빈이 그의 설교에서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역동적인 관계를 전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하나임(*unitas*)과 연속성(*continuitas*)에 문의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우리는 칼빈이 그리스도와 율법의 실체적인 관계를 설교함에 있어서, 비록 항상 명확하게 적시하지는 않지만, 율법은 그리스도를 표상(*representatio*)할 뿐만 아니라 현재(*praesentia*)를 계시한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는 율법의 실체(*substantia*)이며 완성(*perfectio sive completio*)이라는 사실을 신학적 전제로 삼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특히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의 계시로서 본질상 삶의 규범인 율법이 신학적이며 규범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⁵⁵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율법 가운데서(*in lege*), 율법을 통하여서(*per legem*) 계속해서 역사한다. 칼빈의 설교에는 특정한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적(*textual*)이며 콘텍스트적(*contextual*)인 동시적 접근이 현저하다. 이로써 본문에 대한 역사적·문학적 의미가 회중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이다.⁵⁶ 사실 이러한 역동성의

⁵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적 율법 중보에 관해서, 줄저 Byung-Ho Moon, *Christ the Mediator of the Law: Calvin's Chris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Law as the Rule of Living and Life-Giving* (Carlisle, UK: Paternoster Press, 2006), 98-103.

⁵⁵ Serm. Gal. 3:19-20 (453, CO 50.543); Comm. Gal. 3:19 (62, CO 50.216-217). 율법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해서, Serm. Acts 7:35-37 (SC 8.312-314, 328-330); Gen.15:6 (SC 11/2.758-764).

⁵⁶ Cf. David F. Wright, "Calvin's Pentateuchal Criticism: Equity, Hardness of Heart, and Divine Accommodation in the Mosaic Harmony Commentary," *Calvin Theological Journal* 21/1

근저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의 중보 사상이 깔려있다.

칼빈은 그의 신학적 작품들과 성경 주해 작품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전체 역사에 미침을 주장한다.⁵⁷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나눠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하나의 피니라.” 주님께서 이를 행하심은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그 자신의 실체로 살게 하려 하심이다. 몸의 연합이 그로부터 나오고(*la liaison du corps procede de luy*), 그는 우리의 양식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은혜와 은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우물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물을 길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복음이 가르쳐 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이러한 모든 은혜에 대한 믿음을 점점 더 확고하게 갖게 됨을 느끼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다 사라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즐거워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⁵⁸

칼빈은 “중보자(*mediator*)”라는 말을 기독교 강요, 주석과 설교들 그리고 신학적 논문들에 광범위 하게 사용한다.⁵⁹ 가장 특징적인 것은 칼빈이 이 단어를 구약시대 때 주의 사자(*the Angel*)의 현현(顯現)을 통한 중보자의 현재(顯在, *praesentia*)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이다.⁶⁰ 예컨

(1986), 33-50, and “Accommodation and Barbarity in John Calvin’s Old Testament Commentaries,” 413-427. 칼빈의 주석과 설교에 나타난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 Brian G. Armstrong, “Report on the Seminar: An Investigation of Calvin’s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Hervormde Theologiese Studies* 54 (1998), 131-142; Danielle Fischer, “L’Élément historique dans la prédication de Calvin: Un aspect original de l’homilétique du Réformateur,” *Re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64/4 (1984), 365-386.

⁵⁷ Cf. Comm. Gen. 18:13 (1.475, *CO* 23.254); Ex. 3:2 (1.61, *CO* 24.35-36); Isa. 19:20 (2.75, *CO* 36.344); Isa. 63:17 (4.359, *CO* 37.405); Matt. 1:23 (1.69, *CO* 45.69); Jn. 5:46 (1.143, *CO* 47.129); Jn. 16:23-24 (2.125-128, *CO* 47.367-369); Jn. 16:26 (2.129-130, *CO* 47.371); Heb. 8:5 (107, *CO* 55.99); Serm. Matt. 26:36-39 (65, *CO* 46.846); Matt. 26:67-27:10 (114, *CO* 46.886); Gal. 3:13-14 (407-408, 412, *CO* 50.515, 518); Gal. 3:15-18 (423-437, *CO* 525-534).

⁵⁸ Serm. Eph. 4:15-16 (404, *CO* 51.592).

⁵⁹ 1559 년 기독교 강요에서 *mediator* 라는 단어는 적어도 96 회 이상(*mediator* 21, *mediatoris* 39, *mediatorem* 19, *mediatore* 12, *mediatori* 4, *mediatores* 1) 사용되었으며, *medius*, *medium*, *intercedente* 등 다른 관련 단어들도 자주 나타난다. 1539 년 기독교 강요에서는 *mediator* 라는 단어가 여러 형태로 19 회 사용되었다. F. Wever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John Calvin 1539: Text and Concordance* (Grand Rapids: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 1988), 20.m-21.m.

⁶⁰ Cf. Comm. Gen.12:3 (1.349, *CO* 23.117-118); Gen. 16:10 (1.433, *CO* 23.228); Gen. 18:2 (1.470, *CO* 23.251); Gen. 22:2 (1.563-565, *CO* 23.313-314); Ex. 30:23 (2.224, *CO* 24.446); Lev. 16:3 (2.315, *CO* 24.501-502); I Cor. 10:9 (209, *CO* 45.459); Heb. 1:5 (11, *CO* 55.15). Serm. Deut. 9:25-29 (417b-420b, *CO* 26.724-730).

대, 구약 시대의 제사직을 설교하면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만약 그의 중보가 없었다면 제사장들의 피제사는 헛되고 무용했을 것이라고 말한다.⁶¹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현재가 주의 사자의 나타남이나 선지자들의 환상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에 국한되어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구약 시대 백성들의 머리(caput)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심을 말해 주는 성경 구절들에도 확대되어 계시된다고 본다.⁶²

뿐만 아니라 칼빈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율법의 전체 과정, 즉 율법의 형성, 발행, 해석, 용법과 구원의 전체 과정에 해당한다고 설교한다.⁶³ 갈라디아서 3 장 19-20 절 설교에서 “우리의 주 그리스도는 율법의 중보자였다(que nostre Seigneur Iesus Christ a esté le Mediateur de la Loy)”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계속적(tousiours) 중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미치고, 칭의를 위한 율법의 신학적인 용법과 성화를 위한 율법의 규범적 용법에도 미친다고 말한다.⁶⁴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그리스도는 그들의 중보자로서 작정되었다고 믿었다.⁶⁵ 이와 같이 신·구약 시대에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강조함으로써 이신칭의 원리의 구속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가 설교하듯이,

만약 우리가 율법을 발행함에 있어서 중보자(Mediateur pour publier la Loy)의 역할을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위한 옹호자(advocat)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하게 된다면 그가 얼마나

⁶¹ Serm. Deut. 33:9-11 (1202a-1209b, CO 29.142-155); *John Calvin's Sermons on Isaiah's Prophecy of the Death and Passion of Jesus Christ*, tr. T. H. L. Parker (London: James Clake, 1956), 53:12 (140-152, CO 35.679-688).

⁶² Serm. Gal. 1:6-8 (52, CO 50.302-303).

⁶³ Cf. Serm. Gal. 3:19-20 (448-455, CO 50.539-544).

⁶⁴ Serm. Gal. 3:19-20 (452-453, CO 50.541). Cf. Serm. Gal. 3:19-20 (456, CO 50.544): “Il nous a donné sa Loy, il nous a donné son Evangile ne pensons pas qu'en cela il y ait nulle repugnance, mais le tout s'accorde bien.”

⁶⁵ Serm. Gal. 3:13-14 (407-408, CO 50.515): “Vray est que nostre Seigneur Iesus Christ n'estoit point encores apparu au monde, quand la promesse gratuite a esté donnée à nostre Pere Abraham: mais c'est assez que desia il avoit esté constitué nostre mediateur, à fin que par son moyen les hommes fussent reconciliez à Dieu”; Serm. Gal. 3:13-14 (412, CO 50.518): “D'autant donc que desia du temps d'Abraham nostre Seigneur Iesus Christ a esté ordonné mediateur, à fin que Dieu fust appaisé envers nous par son moyen, et quand nous venons en son nom requerir grace qu'elle nous soit apprestee, et que nous ne soyons point frustrez de nostre attente: . . . ”

선하시고 완전하신 해결책이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판결도 내리시겠지만 그 재난을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절망하거나 슬픔과 고뇌가 우리의 마음을 삼키게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의 일을 합당하게 알리시고 감당하신다. 즉,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신을 부끄러워함으로써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율법을 발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로 정하여지신 바로 그 분을 우리가 아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힘써 배우기로 하자. 그 분이 동일한 일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분께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이 일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⁶⁶

IV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의의 전가(imputatio duplex)를 설교함에 있어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위하심으로 그의 영을 내려주셔서 행하시는 지속적인 중보를 강조한다. 예수님의 고난(부활을 포함한)과 승천과 재위에 대한 칼빈의 설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율법의 완성과 적용—에 대한 그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⁶⁷ 칼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의 중보 사역의 완성으로 본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설교하면서, 칼빈은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자신의 전체 의무로부터 자신을 풀어 주었다”고 말한다.⁶⁸ 칼빈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몸(corpus)”이라고 부르고, 이를 “그림자들(umbras)”이었던 옛 제사들과 구별한다.⁶⁹ 그는 또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le soleil de iustice)”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가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⁶⁶ Serm. Gal. 3:19-20 (454-5, CO 50.543).

⁶⁷ “칼빈이 공관복음 전체를 연속해서 설교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CO 46, “Notice Preliminaire,” iii). 그러나 단지 복음서의 첫부분에 해당하는 45 개의 설교만이 남아있다(Matt. 5:11, 12; Lk. 6:22-26 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영화롭게 되심에 대한 설교는 *Congrégation sur la Divinité de Jésus-Christ* (CO 47.465-484), *Sermons sur la Passion de Notre Seigneur Jésus-Christ* (CO 46.833-954), *Sermons de l’Ascension de Notre Seigneur Jésus-Christ* (CO 48.585-622)로서 남아있다.

⁶⁸ Serm. Matt. 27:45-54 (161, CO 46.924): “. . .qu’il s’estoit acquitté de tout devoir de Mediateur, . . .”

⁶⁹ Comm. Jn. 19: 30 (2.183-184, CO 47.419). Cf. Serm. Matt. 27:45-54 (162-163, CO 46.924-925).

위해서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이다”고 설교한다.⁷⁰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교하면서 칼빈은 그의 지속적인 중보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⁷¹ 칼빈은 그것을 단순하게 “모범과 거울(exemple et miroir)”로서만 보지 아니하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그의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⁷²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임재에 관한 성찬 교리에 의지한다.⁷³ 같은 맥락에서 마태 복음 27장 51절—“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을 다루면서 “마치 그림자들의 실체와 실체가 완성된 것과 같이 율법의 모든 형상들이 영으로 변형되었다”고 설교한다.⁷⁴ 또한 그리스도의 산 제사가 “가시적으로(visibile)” 그러나 “영적으로(spiritualiter)” 드러졌음을 주석에서 신학적으로 지적하며,⁷⁵ 성찬을 행함으로써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가시적이 된 실체로 데려 간다”고 설교로써 적용한다.⁷⁶ 성령의 작용으로 중보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될 뿐만 아니라 약속들의 실재가 된다는 주석은 이와 같은 설교의 신학적 근거를 또한 제시한다.⁷⁷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을 통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현존과 사역을 설명함에 있어서 칼빈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시한다. 부활의 은총은 신자들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으로 이해된다.⁷⁸ 승천의 은혜는 신자들이 중재자 그리스도와 교체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⁷⁹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존재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와 교통하신다. 우리가 그와 연합할 때, 그가 비록

⁷⁰ Serm. Matt. 27:45-54 (154, CO 46.918). Cf. Comm. Matt. 27:45 (3.206, CO 45.778).

⁷¹ Serm. Matt. 26:36-39 (65, CO 46.846); Matt. 26:40-50 (80-81, CO 46.858-860); Matt. 25:51-66 (97, CO 46.872); Matt. 26:67-27:10 (114-116, CO 46.886-888).

⁷² Serm. Matt. 26:36-39 (63, CO 46.843-844).

⁷³ Serm. Matt. 26:36-39 (64-65, CO 46.845); Matt. 27:45-54 (156-157, CO 46.920); Matt. 27:55-60 (175, CO 46.935).

⁷⁴ Comm. Matt. 27:51 (3.211, CO 45.782): “. . . quia iam umbrarum substantia et veritas completa erat, figuras legales in spiritum conversas esse.”

⁷⁵ Comm. Matt 27:51 (3.211, CO 45.782).

⁷⁶ Serm. Matt. 27:45-54 (156, CO 46.920).

⁷⁷ Comm. Lk. 24:47 (3.235-236, CO 45.818).

⁷⁸ Serm. Matt. 28:1-10 (194-96, CO 46.952-954).

⁷⁹ Serm. Acts 1:9-11 (236-240, CO 48.617-621).

높은 곳 하늘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의 몸의 실체에 의해서 양육된다. 이 일이 믿음의 능력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육체적으로만 내려오지 않으시기 때문이다.⁸⁰

나아가서 칼빈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unio mystica cum Christo*)의 관점에서 다루고, 이를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에 대한 성찬 교리로 설명한다.⁸¹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의 영에 의해서 “인격 가운데(*en personne*) 중보자로서” 믿고 있지만, 구약 백성들은 그를 단지 “모형들과 그림자들(*figures et ombres*)” 가운데서 바라본다.⁸²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부여된 성령과 같은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례 주셨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을 그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정의한다.⁸³ 성령의 오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주석하면서, “우리의 중보자와 중재자로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인 이상 그는 그 은혜를 자신으로부터(*a se ipso*) 부여한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혜사(*Paracletus*)인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그를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patronus*)”로 믿게 하신다고 말한다.⁸⁴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대한 다음 주석이 따르는데, 이는 그의 설교가 기초한 신학적 배경을 잘 나타낸다.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런 말씀들로부터 추론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열심이 계속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한다. 나는 성령이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quae facultatis nostrae sunt*)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오히려 성령은 우리가 해야 할 것(*quid fieri oporteat*)을 보여 주어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다른 곳에서 그 힘을 찾도록 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인내를 권고하실 때,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Marte et industria*)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확신시키시는 자신에게 기도하게 하신다.⁸⁵

⁸⁰ Serm. Acts 1:9-11 (240, CO 48.620): “Et quand nous sommes unis à luy, nos ames sont nourries de la substance de son corps (combien qu’il soit là haut au ciel), mais cela se fait par la vertu de la foy et par le S. Esprit. Car Iesus Christ ne descend point corporellement.” Cf. Comm. Acts 1:11 (1.34-36, CO 48.12-14).

⁸¹ Serm. Acts 2:1-4 (250-257, CO 48.629-636).

⁸² Serm. Acts 2:13-17 (265, CO 48.642). Comm. Acts 2:17-21 (1.56-62, CO 48.31-37).

⁸³ Comm. Acts 1:5 (1.27, CO 48.6-7). Cf. Comm. Jn. 14:20 (2.84, CO 47.331).

⁸⁴ Comm. Jn. 14:16 (2.82, CO 47.329).

⁸⁵ Comm. Jn. 15:9 (2.97, CO 47.342).



결국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기도의 중보가 그의 영의 임재로 증거되는 것이다.⁸⁶

V

칼빈의 설교에서 강조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은 성도들은 또한 그의 계속적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맞추심에 따라서 그를 기뻐하게 하는 자리에 선다. 인간의 능력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전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이다. 1536년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하듯이, “율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 (CO 1.46).⁸⁷ 율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역량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맞추신 의가 아니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맞추어 주신 의(*iustitia accommodata*)이다.⁸⁸ 이러한 그저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도 기쁘게 받으시고 율법의 엄격한 요구를 완화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관용(*paterna indulgentia*)으로부터 나온다.⁸⁹ 이하 인용된 설교에서 칼빈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죄성에 맞추어 주셨는가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자로서의 현존을 동시에 다루면서 설명하고 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게 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을 그들의 능력에 맞추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나 우리에게 자신을 자신의 실체 가운데서(*en son essence*) 계시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⁸⁶ Sermon. Isa. 53:12 (140-152, CO 35.679-687); Deut. 11:26-32 (482a-488b, CO 27.135-149).

⁸⁷ “. . . in lege Dei non opus respiciendum, sed mandatum.”

⁸⁸ Cf. Sermon. Deut. 28:1 (88-89, CO 28.353); *Sermons of Maister Iohn Calvin upon the Booke of Job*, tr. Arthur Golding (London: George Bishop, 1574), facsimile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3), 10:16-17 (186a-187, CO 33.496-499); Job 23:1-7 (412a-416b, CO 34.331-344).

⁸⁹ Comm. Deut. 30:11-14 (1.412-414, CO 24.257-258). Cf. Sermon. Deut. 5:28-33 (284-285, CO 26.417).

맞추셨다(*s'accommode*).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신 그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의 수준까지 자신을 낮추어야만 하셨다. . . .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야망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낮은 곳에서 자신을 계시 하셨다 하더라도, 그가 그렇게 하심이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심이었음을 기억하자.⁹⁰

칼빈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을 그가 율법의 실체를 명확히 계시했다는 사실과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중보자의 현현과 중보 사역의 완성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의 의미를 다룬다. 칼빈은 복음을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의 현재(*praesentia*)에 관한 엄숙한 선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사역을 행하심(*defunctum*)”에 대한 복된 소식이라고 정의한다.⁹¹ 복음은 그리스도를 율법의 실체로서 계시하기 때문에, 복음은 율법의 완전한 의를 가르친다고 주장한다.⁹² 율법의 실체(*substantia*)는 단지 십자가상의 율법의 완성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다. 칼빈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나심, 죽음, 부활은 구원의 전체 개요를, 참으로 모든 것보다 구원의 실체(*materia*)를 그들 속에 포함하고 있다.”⁹³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을 역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칼빈은 율법과 복음의 실체적인 일치와 율법의 성격을 전체 종교 구조로서 이해함에 이르게 된다.

칼빈이 그의 에베소서 설교에서 말하듯이, 십계명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믿음(첫째 돌판)과 사랑(둘째 돌판)으로 살아야 할 기독교인의 삶의 요약이자 완성으로서 삶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

⁹⁰ Serm. Deut. 5:4-7 (53, CO 26.248). 하나님의 맞추심(*accommodatio*)은 칼빈의 십계명 주석보다 설교에 더욱 생생하게 나타난다. Cf. Serm. Deut. 5:4-7 (56, CO 26.251); Deut. 5:8-10 (69, CO 26.261); Deut. 5:8-10 (77, CO 26.267); Deut. 5:11 (83, CO 26.271); Deut. 5:16 (135, CO 26.310); Deut. 5:17 (153, CO 26.323); Deut. 5:17 (155, CO 26.324); Deut. 5:22 (241-242, CO 26.387); Deut. 5:23-27 (257, CO 26.397); Deut. 5:28-33 (285, CO 26.417).

⁹¹ “The Them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y*, 1.xi-xii (CO 45.2). Cf. Comm. Acts 1:1 (1.21, CO 48.1-2); Serm. Acts 1:1-4 (198, CO 48.586): “. . . le sommaire de l'Évangile est compris en ces deux mots, c'est ascavoir que Iesus Christ a enseigné et qu'il a fait: . . .”

⁹² Comm. Matt. 5:21 (1, 83, CO 45.174).

⁹³ “The Them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y*, 1.xii (CO 45.2).

상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 된다.⁹⁴ 같은 맥락의 공관복음서 설교에서 칼빈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규범으로서 십계명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진리와 실체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계시되며 구현된다고 주장한다.⁹⁵

신명기 설교에서 “율법의 은혜”를 다루면서 칼빈은 전체 구원 과정에 있어서 율법의 의의 가치를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한다. 먼저 그는 율법의 규범성에 대해서 말한다: 사람은 율법의 전체(the whole corpus of the law)를 지켜야 한다; 사람들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공표하기 전에 미리 작성한 아들을 치유책(remedium)으로 주셨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완전한 행위를 의롭게 받으셨다.⁹⁶ 그리고 그는 율법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율법의 의를 다룬다: 율법의 명령(praeceptio)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quid possint homines)이 아니라 해야 할 것(quid debeant)을 계시한다; 율법의 약속(promissio)은 칭의와 성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를 계시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영생에 이른다.⁹⁷ 은혜 언약에서 율법의 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에 속한다; 심지어 조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부성적(父性的) 사랑에 의해서 성취된다; 그러므로 선행에 대한 보상은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까지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⁹⁸ 그러므로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정죄의 법이 아니라 언약의 법(*lex foederis*)이다.

“Sermon de la justification”라 불리는 창세기 설교의 한 부분에서 칼빈은 율법의 정죄적인(punitive) 용법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경건한 삶

⁹⁴ Serm. Eph. 1:15 (84-87, CO 51.312-315).

⁹⁵ Serm. Lk. 1:75 (CO 46.189-190). Cf. Serm. Isa. 32:6 (SC 3.120-122).

⁹⁶ Serm. Deut. 27:24-26 (63-76, CO 28.335-345).

⁹⁷ Serm. Deut. 28:1-2 (78, CO 28.345-357).

⁹⁸ Serm. Deut. 27:11-15 (21-29, CO 28.306-312).

의 규범을 가르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공표하시는 것으로 파악한다.⁹⁹ 칭의의 원인과 관련해서 율법과 복음 사이와 믿음과 선행 사이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선행은 없다.”¹⁰⁰ 율법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를 직접 계시하지 못하지만, 칭의와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이중적 은혜를 지시한다.¹⁰¹ 이와 같이 율법과 복음은 전체적으로 기독교론적으로 이해됨으로써 구원론에 적용된다.

VI

월레스(Ronald S. Wallace)가 지적하듯이,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의 규범을 세우는 수단”이다.¹⁰²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칼빈의 *Christus mediator legis* 개념은 기독교론적이며 구원론적인 의의가 있으며 구원사의 영역 뿐만 아니라 개인 구원의 전체 과정에 적용된다. 칼빈의 문학적·역사적 해석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중보와 이것의 구원론적인 적용에 기초한 기독교론적 율법 이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장함은 합당하다. 칼빈은 자신의 성경적 해석을 유대인들의 문자적 해석과 구별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율법의 역사성은 중보자의 역사적 현재(顯在)와 사역을 반영하며, 역사적 성경주의(historical biblicism)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동성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의 기독교론적인 연관성 가운데서 추구되어야 한다.

이상 칼빈의 설교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중보의 하나임

⁹⁹ Serm Gen. 15:6 (SC 11/2.756-758): “Vray est que la Loy nous montre bien que c’est de justement vivre, et d’acquérir justice si nous en estions capables, comme nous traiterons plus au long ici apres” (757).

¹⁰⁰ Serm. Gen. 15:6 (SC 11/2.758-759): “Et pourquoi donc est-ce que saint Paul trouve une telle contrariété entre la Loy et l’Evangile? C’est au regard de nous justifier. Autant en est-il entre la foy et lex oeuvres. Il y a contrariété entant que les oeuvres sont merites. Et qui plus est, nous ne pouvons faire *nulle bonne oeuvre sinon par foy*, comme nous l’avons desja touché, et sera encores deduit plus au long. Car la cause et l’effet ne sont pas contraires, mais quand nous voulons establir quelque merite en nos oeuvres, c’est à dire que nous voulons qu’elles doivent valoir pour nous aquerir grace devant Dieu, et que soyent une satisfaction pour nos pechez, brief, qu’elles nous servent à salut, c’est pour ruiner du tout la foy, et par ce moyen-là elle est aneantie.” Calvin refers especially to James in order to explain this position. Serm. Gen. 15:6 (SC 11/2.780-785). Cf. Ganoczy and Scheld, *Die Hermeneutik Calvins*, 194-201. (Grand Rapids: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 1988),

¹⁰¹ Cf. Serm. Job 10:16-17 (186a-187, CO 33.496-499), 11:1-6 (195b ff., CO 33.521 ff), 13:16-22 (238a-b, CO 33.633-634), 15:11-16 (273a-b, CO 33.726-727), 23:1-7 (412)(Grand Rapids: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 1988), a-416b, CO 34.331-344), 27:1-4 (455b, CO 34.447-448).

¹⁰²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85.

과 연속성에 기반한 기독교론적이며 구원론적인 계시—율법과 복음—이해의 일단(一端)을 살펴보았다. 율법과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은 그 실체로서 그리스도의 현재와 표상을 계시함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설교에서는 이러한 신학적 기저가 그 자체로서 강조되기 보다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신약 시대 성도들의 경륜적인 특권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치성과 차이성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가 구속사적이며 구원론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결국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말씀이 말씀의 해석자이자 교사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설교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를 지금 증거한다. 설교자는 그 증거자이다.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의 구조에 의해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맞추심(accommodatio)의 가르침(doctrina)이 계시되고, 화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그의 의의 이중적 전가가 작용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중보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듣는 자마다 변화에 이른다—화해자로서의 중보.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서 영생을 완성하도록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중재자로서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고 그의 의와 계속 교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자유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를 확신하는 가운데 그의 명예를 메고 (Matt. 11:28) 그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⁰³ 이것이 칼빈이 설교한 기독교론의 핵심(essentia)이자 정점(culmen, 頂點)이다.¹⁰⁴

¹⁰³ Serm. Gal. 6:2 (811-816, CO 51.68-72).

¹⁰⁴ Sydney Greidanus 는 루터의 구약 설교가 기독교론적 해석(Christological interpretation)에 기반해 있는 반면에 칼빈의 구약 설교는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적 해석(Theocentric interpretation)에 머물러 있어서 성경의 역사적 의미를 추구하기는 했으나 전통적인 교훈적/도덕적 의미(traditional tropological/moral sense)는 함유하지 못한 약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가 칼빈의 구약 설교에 나타난 중보자 그리스도의 현재(praesentia)와 예표(repraesentatio)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소이(所以)이다.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9), 127-151. Greidanus 는 다른 책에서 구속사적 설교를 다루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하나님 중심적 설교다(Christocentric preaching is theocentric preaching)” 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와 같은 관점을 오히려 취해 본다면 엄밀히 말해서 칼빈의 설교는 삼위일체론적-기독교론적 설교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70), 140-146. 기독교론 중심적 설교에 관한



<논문요약>

칼빈은 축자적이며 문자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친히 말씀하심으로써, 성도에게 들려져서 그들의 믿음과 삶에 가시적으로 나타남을 강조하는 바, 그 신학적 배경에는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사역으로 말미암은 계속적인 의의 전가라는 개념이 놓여 있다. 본 논고의 목적은 이러한 칼빈 설교의 기독교적 기초를 고찰함에 있다.

Calvin emphasizes the influence of the sermons of the Word of God, inspired verbatim and litteratim, upon believers which are visibly marked in faith and life. In doing this, Calvin refers to the continuous imputation of the righteousness of Christ the mediator through His continuous mediation working in the believers' mystic union with Christ. Regarding this point, in the article, the author studies the Christological foundation of Calvin's sermons.



설교학적 입장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Grand Rapids: Baker, 1994), 17-32, 263-286.